

전주시, 자전거전용도로 만든다

에코시티·효천지구 등 신도시개발지구에 우선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민성지구 등 신도시개발지구 주요도로 곳곳에 우선적으로 안전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는 신도시개발지구의 자전거도로를 국토교통부의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맞춰 보도와 분리형으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시민들의 생활 속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자전거타기 편리한 환경이 갖춰지면 앞으로 추진될 차 없는 거리 운영과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등을 통해 전주를 배기가스 배출이 줄어든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구간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등 시공시설을 이용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러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도로폭이 좁고 가로수와 전봇대, 상판전열대 등 방해물이 많아,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에 시는 에코시티·효천지구 등 신도시개발지구의 자전거도로 총 15.29km 중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11.23km에 대해서는 보도경계에 가로수 등을 식재해 자전거전용도로를 시



“대통령을 수사하라” 참여연대가 지난 4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고발장을 들고 들어서고 있다.

설기로 했다.

나머지 4.06km에 대해서는 보도에 단차를 두어 분리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에코시티 사업지구 35사단 세병호 근린공원 내 자전거도로(1.4km)에 대한 공사를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 자전거도로와 연결을 위해 백석저수지에서 화정소류지까지 연계도로를 오는 2020년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 생활 속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공공 자전거 대여소를 기존 자연생태박물관과 덕진하천관리소 등 2개소에서 덕진공원과 종합경기장, 전주역을 포함

한 5개소까지 늘렸다.

또한 시는 지난달에는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하고, 올 한해 전주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도 총 30회에 걸쳐 운영하는 등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과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했다.

이밖에도 시는 서부신시가지 등 야간과 주말, 휴일 등 취약시간 대상습·고질적으로 성행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지도·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자전거는 탄소배출의 우려가 없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서, 녹색성장 시대에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앞으로 신도시개발시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분리된 전용도로를 건설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신도시개발지구에 개설 예정인 도로는 효천지구 8.29km와 민성지구 20.45km, 에코시티 22.34km로, 시는 3개 신도시개발지구에 각각 5.1km와 8.24km, 10.19km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시민안전에 집중 선제적 제설대책 추진

전주시,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기간 정하고 종합상황실 운영

전주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교통안전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철저한 도로제설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강설시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가지 주요간선도로 56개 노선, 309km에 대한 도로제설대책을 마련하고, 겨울철 내린 눈과 결빙된 도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통 소통 및 도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제설대책기간 동안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도로제설대책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적설량에 따라 1~5단계별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적설량이 7cm 이상이거나 제설·결빙상태 등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청 전 직원이 제설담당 구역에 긴급 투입돼 이면도로 및 인도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살포기 33대를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해 활용키로 했다.

또, 간선도로의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차량 장착용 전동살포 14대를 추가 구입에 비치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원활한 도로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제설장비와 제설자재를 확보하는 등 제설작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시는 원활한 도로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현재 살포기와 제설용 트럭 등 105대의 제설장비를 확보한데 이어 염화칼슘 등의 제설자재도 1630톤을 확보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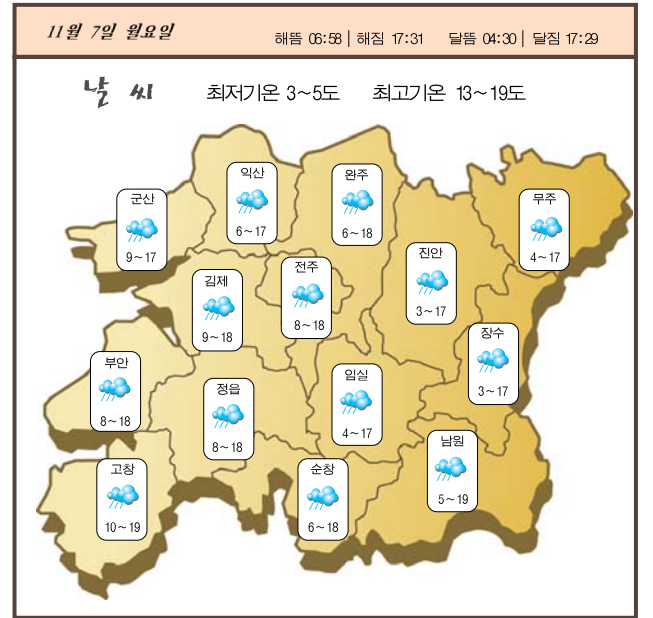
또한 시는 모래설치장소(483개소)와 주요 간선도로, 등 주민센터 등에

7만개 정도의 모래주머니를 배치하고, 향후 5만개의 여유분을 추가 제작해 제설시 교통 및 보행안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시 도로하천과 직원들도 오는 17일 덕진구청 도로관리소에서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미끄럼 방지용 모래주머니 만들기에 참여할 계획이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근주민들을 모래주머니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내 집 앞 눈은 내 손으로’라는 스티커를 제작·배부해 시민홍보와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안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 제설작업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겨울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시, 지역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재)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는(공동이사장 김승수 전주시장, 운영위원장 김대호)는 5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16년도 2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41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장학생 선발에는 총 67명(경쟁률 1.63:1)이 신청해 학업성적과 생활정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평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41명이 선발됐다.

장학생 1인당 장학금 지원액은 200만원 범위 내로, 인재육성재단은 2학기 장학금으로 총 6500만원에 지원했다.

운영위원장 김대호는 인사장은 이날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지식정보화 시대에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학업에 더욱더 정진해 전주시와 세계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우수인재로 커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21세기는 두뇌와 인재가 경쟁력인 시대이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지역 우수인재 장학생 1,225명을 선발해 총 18억3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영재기자

전북도교육청, 12개 혁신학교 추가 선정

전북도교육청이 고창초 등 12개 학교를 2017년 혁신학교로 전주 덕일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선정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의 혁신학교는 총 161개로 늘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정된 혁신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고창초 1교, 중학교는 군산제일중 등 6개교, 고등학교는 양천고 등 5개교다.

주요 선정학교 현황을 보면 고창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100여명으로 농촌학교로서는 보기 힘든 대규모 학교

이나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노력, 교육과정과 수업 개선 의지,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가 높게 평가됐다.

고등학교는 이번에 12개 학교가 응모했으며 이 중 양천고, 정읍고, 인월고, 임실고, 고창고 5개 학교를 선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혁신학교 심사과정에서 학생중심의 수업, 교사의 자율성, 민주적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 현장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